

뉴스에이리저리치이며

Scholium

Scholium
뉴스에이리저리치이며
2021-02-13

2021.05.24, 원문링크 <https://scholium.noblogs.org/post/2021/02/13/getting-pushed-around-by-the-news-2nd-ed/>
원문 "Getting Pushed Around by the News" (영문) 번역본

kr.theanarchistlibrary.org

2021-02-13

정보기술이우리의일상에점점더깊이침투하면서, 뉴스는대중의식의중심 자리를차지하게되었다. 우리는작은인터넷기계를항상휴대하기때문에항상뉴스에쫓긴다. 사람들과어울리기위해사용하는소셜미디어에서우리는기사, 반응글과뉴스관련‘짤’의폭격을받는다. 채팅방에서우리의가족과친구들은그들이감정적반응을하게만든기사들에우리도같은반응을갖길바라며글들을공유한다. 어디를가던, 피할수없이우리는뉴스의추적을당한다.

인터넷의편재성은뉴스를일상으로들여놓는다. 뉴스를접하기위해텔레비전 근처에서정해진시간을기다리거나거추장스러운신문지를펼칠필요가없다. 그리고과거와는다르게, 이제는실시간으로소식을접한다. 이는우리의현상학적경험을극단적으로바꾼다. 더이상우리일과는기상, 출근, 사고, 식사, 새소식접한뒤취침전취미로이뤄진생활이아니다. 대신우리일과는홍콩의폭동속에서힘겨운삶이나, 극우의무력과시에대한두려움이나, 정신적으로불안정한‘교외엄마’들이하는우리현소문화권에서용인하지않는행동에대한독선적인경악감으로조금씩채워진다. 뉴스는시간을가리지않고침투한다.

활동가와급진주의자들은새로운사건을추적하고이에응답하는것을모든활동의시발점으로만들었다. 그렇지않으면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특권을누리는것으로보이고효과적이지않은것으로인식된다. 우리가좋아하지않는일이뉴스에올라오면, 당장가서그문제를해결하라는부름이내포돼있다. 일부는우리가지금일어나고있는그어떠한끔찍한악행도멈출수있다고생각한다. 또다른이들은시작부터실패할것이뻔한투쟁과시위를통해‘세력을키우자’는입발린말을한다. 각자의냉소함이나사상과는무관하게, 우리는뉴스를통해접하는사건에대응하는것에중점을둔다.

뉴스소식의화려한그특성때문에우리에게정말로일어나고있는일을알아내기힘들어진다. 우리는일상의경험의중요성을무시하고뉴스로접하지만않았다면우리삶에분명한영향을끼치지않았을사건에만집중하게된다¹.

뉴스에의존하는것은세상을알파고변덕스러운관점으로이해하는것이다. 초기보고는절대로정확한경우가없고같이보도내용은맥락을쉽게흐린다. 보도된사건이일어난현장 -예를들자면시위-에있어본적있는사람은이점을긋바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기자는대개맥락을모르거나, 자신들의사상에알맞게사건을보도하거나돌다이다. 때문에우리가세상소식을모르는것이아닌, 뉴스는우리가무언가를이해하고있다는착각을하게한다.

뜻깊은분석이나생각은뉴스에는존재하지않는다. 기사들은 -특히인터넷에서훑어읽히는기사들- 독자의관심을잃지않고새로운개념이나사고방식을묘사할시간이없다. 새로운관점에대한상세한설명을할시간이없다는것은지배적사

¹ 뉴스가직접경험을다룰때처럼, 이개념은모호해진다. 백인경찰관에의한조지플로이드의참혹한살인은전세계곳곳의수백만명이자신들의경험에대해서되돌아보게만들었다. 이는그들도경찰폭력에시달리기때문일수도있다. 그들과그들이사랑하는사람들이비슷한운명을맞게될수있다는가능성이뇌리에서떠나지않는다. 고로, 조지플로이드의살인을뉴스를통해목격하는것은그들이항상

대담하고, 자의적이고 확고한 주장을 갖은 사람은 비협조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존중한다. 남을 위해 계속해서 바뀌는 사람은 우리는 존중하지 않는다. 융통성은 물인격적이다. 신자유주의와 행동주의 모두 우리를 대중의 시중으로 만든다.

새로움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과 다르게,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그 활동에 대해서 당신의 변화와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해준다. 뉴스 소식에 대응해 계속해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바꾸는 것은 이 가능성을 희생시킨다. 이를 통해 배우는 것이 있다면 이는 절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 오로지 변하는 현실에 반응하는 방법뿐이다.

출처

- Bauman, Zygmunt. "Liquid Modernity". 1999
- Horkheimer, Max. "Eclipse of Reason". 1947
- Landstreicher, Wolfi. "On Projectuality" Willful Disobedience, vol. 4, number 1. 2009. <https://writerror.com/texts/on-projectuality>
- Nhat Hanh, Thich. Fear: Essential Wisdom For Getting Through the Storm. 2012
- Scholium "The Hollowing of Anarchy: Exhibition Value". 2019. <https://scholium.noblogs.org/post/2019/01/20/the-hollowing-of-anarchy-exhibition-value/>

상의 현실에 대한 묘사법이 승리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뉴스에 관심이 쏠려 있다는 말이 사실이면, 이는 자본주의 상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뉴스는 어느 소식에 대한 흥분을 만든 뒤 곧바로 다른 곳으로 관심을 바꾼다. 이모순 덕분에, 모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 - 다음 주가 돼 우리가 이 사건을 잊기 전까지는. 트럼피즘⁽¹⁾과 2016 년 대선 당시 제기된 러시아와의 내통에 대한 고발이 이 현상에 대한 예이다. 우리는 이 사건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지만, 신경 써야 하는 사건들은 매주 바뀌고 이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 결국 뉴스를 향한 분노는 상관없어진다. 제보된 현상이나 사건은 일상이 되면서 분노의 대상은 군중의 걱정거리로부터 서서히 잊혀진다. 일상은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노를 표출할 만한 새로운 사건으로 관심은 넘어간다. 예를 들어, 이십 년 전 노동착취 공장에 대한 분노와 여러 반대 운동이 있었지만, 이 공장의 존재 사실이 상식이 되자 사람들은 걱정하기를 그만두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뉴스 사업의 이념은 매우 강력한 기관들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 글에서 설명할 필요 없는 기업 매체에 대한 수많은 비판이 존재하지만, 간단한 증명이면 충분하다: 권력을 쥔 사람이나 기관이 무언가를 대중의식에 들이길 원한다면, 그들은 그저 보도거리가 부족한 기자에게 그 무언가를 쥐어주기만 하면 된다. 안될 경우 짤, 붓 또는 소셜 미디어 상의 다른 허위 정보도구를 사용하면 된다.

뉴스가 구경거리로 변질되면서 사람들은 뉴스에 보도되기 위해서만 행동하기 시작한다. 행동은 현실성을 잃고 덕분에 영향력도 잃는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랄핑'(LARPing)⁽²⁾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우리는 그들이 진짜로 무언가를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온전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전시성의 군림이다. (Scholium, 2019)

관심을 끌기 위해, 뉴스는 두려움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려 한다. 뉴스에서 본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무대 뒤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는 오래되고 잘 알려진 지적이지만, 아나키에 끼치는 영향은 그렇지 않다. 두려움은 무력함을 불러일으켜 우리로 하여금 보호자를 원하게 하는 반아나키적 태도를 갖게 한다. 선불교 승려 틱낫한은 두려움은 어릴 적 부모를 향한 의존성으로부터 난다고 서술한다. 한없이 무력한 탓에, 우리는 생존을 위해 그들에 의존했고 때문에 그들이 없을 때 두려움에 떨게 됐

경험하는 두려움과 억압의 연장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은 일반적인 현실을 증명하는 예외 상황이다.

(1) 트럼피즘 (Trumpism) 은 미국의 45 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의 허무맹랑한 말과 행동들을 일컫는다.

(2) 랄프 (LARP) 는 영어 'Live-Action Role Play' 의 약자로 보드 게임이나 비디오 게임 같이 가상에서 하는 역할 게임이 아닌, 현실에서 상상 속 놀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에서 랄프는 어린이들의 놀이와 유사하다.

다는 것이다. 두려움은 부모 곁으로 돌아가 보호를 받으라는 신호이다. 결론적으로, 두려움은 권위를 좋게 보게 만든다.

일부는 최신 뉴스를 듣는 것을 넓은 세상의 현황에 대해 아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들은 뉴스에 주의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그들이 사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뉴스가 정말로 새로운 사건을 보도한다면, 일상의 사실은 누가 보고하는 건가? 우리 주변의 사회와 세상에 그 어떠한 화려한 사건도 일어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뉴스는 원래 비정상적인 사건을, 일상을 벗어나 전개되는 것들을 보도해야 한다. 뉴스의 편향을 무시하고, 보도내용이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온전한 현실이라는 말을 믿는 다해도, 어쩌서 새로운 소식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 사항이 되어야 하는가?

때를 불문하고, 셀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동착취공장에서 노역을 하고 비인간 동물들은 공장식 축산 농장에 갇혀 있다. 수억 또는 그 이상 이기아와 식량 부족에서 달린다.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다. 세상 모두가 무력함과 불안함에 떨고 자신의 의식을 통제할 수 없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이제 서야 이해하기 시작한다. 큰 수 없이 많은 방법으로 우리 삶으로부터 소외됐다. 1968 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인민봉기 당시, 누군가 벽에 '비혁명 주말 하나는 일개월간 끊임 없는 혁명보다 무한히 더 잔인하다'라 적었다. 어쩌면 일상 속 시험과 압박은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글은 반드시 지속적인 사회 운동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요점은 뉴스와 새 소식은 고통의 독점을 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뉴스와 새 소식과의 지나친 접촉이 일으키는 '경험 포화'는 의식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물론 평상시의 자질구레함은 군중의 관심을 끈적은 없지만, 뉴스 전달의 용이성은 '사건'을 일상보다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만들었다. 새로운 사건에만 관심을 갖고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경시한다. 이 모든 것은 후자가 우리 일생의 경험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새로운 것에 대한 지속적인 집착은 끊임 없는 섭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를 드러낸다. 뉴스가 보도하는 새로운 사건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선견지명이 부족하다 (Landstreicher, 2009). 이들은 자기 지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움으로부터 방향성을 찾는다. 우리들 중 원하는 세상에 대한 뜻이 확고하고 현 세상에 대항하며 사는 방법을 아는 이들은 과업과 가능성을 위한 무한한 가능성을 쥐고 있다. 그들은 일상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사회에 맞서 비대칭전을 펼치고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능성을 탐구하고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기른다. 이러한 작업들은 뉴스에 대한 조증스러운 의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항상 그렇지 않겠지만, 사색과, 대화와 영감을 통해 우리도 언젠가는 과업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소식에 대한 집착은 어떠한 보수주의를 드러낸다. 마치 일부 사람들은 현재 세상의 상태에 대한 불만이 없는 듯하다. 이들이 문제삼는 것은 일상의 변화이고

위기이다. 어쩌면 자본주의 아래 일상을, 그 하찮은 여가 활동과 불만족스러운 인간 관계와, 전체적인 소극성을 이들은 그닥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일지 모른다.

흔히 급진주의자들은 사회적 위기를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용한다. 우리가 지지하는 입장 중 하나는 우리가 지지하는 것을 대중 또한 지지할 경우, 이에 대한 투쟁을 대중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우선 사항이 되지 않는 한에서 해로울 것이 없는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가 뉴스 진입주의자, 급진주의자, 모든 쓸모없는 시위에 참여를 지지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얼마 안 가 반복된 실패 덕분에 지치기만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적 문제는 시위를 통해, 무장 시위라 할지라도, 해결될 수 없고 우리 같은 헌신적인 소수만으로 성공적으로 항쟁의 규모를 키울 수 없다. 투쟁이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를 돕기 위해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일어나는 모든 시위에 '힘을 기르기 위해' 참여하는 것은 절대로 효과적이지 못하고 잘해 봐야 시간 낭비이다.

뉴스와 소셜 미디어를 향한 비판을 들은 일부는 실용주의를 주장할 수도 있다: "세상은 바뀌었고 우리는 온라인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무산될 것이다." 막스 호르크하이머 (Max Horkheimer) 는 이 '도구적 이성'을 지적했다. 미로를 가로지르는 쥐는 이 도구적 이성을 사용한다. 이성을 사용해 직시하는 현실에 자기 자신을 적응시키는 것이다. 현대의 이성을 지배하는 유형으로서 오로지 수단을 고려하고 절대로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다. 묵언의 암시된 그의 목적은 자본주의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다: 돈을 번다,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 등. 하지만 다른 유형의 이성도 존재한다. 자신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성을 사용하는 것처럼, 원하는 인생과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갖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유형의 이성은 완강하고 도전적이다, 세상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다 (호르크하이머, 1947).

반면에, 뉴스에 자기 자신을 끊임 없이 맞추는 것은 모든 것이 일시적인 '유동적 근대성'의 신자유주의 시대 경제에 반응하도록 훈련된 습관이다. 빛과 예산 감소와 불안정한 직장이 유발하는 경제적 불안정함은 우리가 경제를 위해 계속해서 변하게 한다. 당신의 직장이나 동화, 감축 또는 외주되고 있는가? 재교육 받고 분야를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당신의 고장에 당신의 분야와 관련된 일자리가 없거나 높아지는 집세를 감당할 수 없는가? 살던 곳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연인 관계에서 우리는 한 사람 이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상황이 있을 때 힘의 불균형이 있다고 한다. 이 관계의 조건은 후자가 내세우고 힘은 그에게 있다. 뉴스가 우리에게 내세우는 행동 조건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뉴스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다. 뉴스가 우리에게 맞춰주지 않고 우리가 뉴스에게 맞춰주는 것이다. 세상의 거대한 체계들이 우리들보다 더 강력한 것은 당연하고 이에 꾸준히 반응하는 것은 이 체계에 대항하는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아나키스트는 수단을 목적에 맞게 계획해야 한다. 강력한 기관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이에 알맞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